

살벌한 주차전쟁... 무너지는 이웃 공동체

광주 차량 파손·유성매직 낙서에 시비 끝 주먹질 등 빈발 ‘내집 앞 주차장 갖기’ 등 사회적 접근 통해 갈등 해소해야

지난 14일 오전 광주시 북구 한 골목길에서 A(42)씨가 B(34)씨의 차량 앞범퍼를 발로 차 재물 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자신의 집 앞에 주차를 해놓았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했고, 피해 수준이 경미했음에도 화가 난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4일에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30대와 20대 남성이 서로 주먹과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C(39)씨는 오전 출근시간대 아파트 주차장 통행로를 막아둔 D(28)씨에게 차량을 옮길 것을 요청했으나 D씨가 “뒤통을 때도 되는데 왜 내차를 빼야하느냐”고 맞서 다툼이 시작됐다.

지난 8월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상습적으로 주차한 같은 아파트 주민의 차량을 훼손한 E(59)씨가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E씨는 차량 앞 유리 유성 매직으로 ‘이곳은 주차금지’라고 큼지막하게 써놓았다. 해당 차주와 평소 주차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E씨는 경찰에서 “매번 주차장 입구에 똑같은 차가 주차하는 바람에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광주 곳곳에서 주차 시비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내 집 앞에 주차를 했거나 다른 차의 통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시작된 시비는 점점 격해져 차량을 파손하거나 차주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모두 64만6936대다. 최근 3년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61만1280대, 2016년 63만3375대 등 매년 3% 이상 증가하고 있다.

만 20세 이상 성인(2015년 기준 113만 1494명)으로만 따졌을 때 광주시민 2명 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주차갈등은 도심의 주차 공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내 집 앞은 내 땅’이라는 이기적인 생각도 분쟁을 자초하고 있다. 공공 도로를 마치 내 집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주차를 막기 위해 물이나 시멘트를 채운 플라스틱 통, 고깔 모형의 안전표지만, 타이어 등이 주택이나 상가 주변에 설치된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차 문제를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지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까지 사업을 확대 운용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구성한 조정기구들도 주차갈등 등 이웃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남구 백운동에서 문을 연 ‘마을분쟁해결센터’가 대표적이다. 센터에는 분쟁해결에 나설 조정인으로 변호사, 법학 교수, 법무사, 지역명망가 등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장을 만들고, 당사자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부영산 유골’ 28년 미스터리 풀릴까

7·11공수 주둔지...5·18 행불자와 유전자 일치할지 재검식

지난 1989년 광주시 동구 녹동마을 인근 부영산에서 발굴된 유골에 대한 재검식이 진행돼 결과가 주목된다. 이 유골의 5·18 연관과 관련, 당시 법의학 전문가 3명 중 2명은 ‘총상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으나 조사를 주도했던 1명이 이를 끝까지 부정하는 바람에 ‘5·18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났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초 ‘부영산 유골’의 유전자 5·18 행방불명자와 일치하는지, 전남대 법의학고실에 조사를 의뢰했다. 해당 유골과 5·18 행방불명자의 유전자(DNA)를 대조, 확인하는 작업이다.

또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 무명열사 571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

사도 지난 2002년 이후 다시 이뤄진다. 해당 유골은 1989년 1월13일 녹동마을 인근 ‘부영산’ 기슭에서 머리 뒤쪽에 지름 5cm 크기 구멍이 난 채 발굴됐으며 20대 남성으로 추정됐다.

부영산 일대는 5·18 당시 7공수와 11공수가 주둔했던 곳으로, 유골과 100여m 떨어진 지점에서 녹은 탄환 1500여발과 M1 탄창 30여개가 발견돼 시신과 5·18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유골을 조사했던 이정빈 당시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는 조사 첫날 유골을 확인하고 5년 이내의 것으로 단정했으며, 두개골에 난 구멍이 총탄 자국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어르신 안마 봉사하는 ‘학생 산타들’ 산타 옷을 입은 문흥중 학생들이 18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사랑에 숲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안마 봉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숨진 신생아 중 3명 ‘그람음성균’ 감염 의심

중증질환자 2차 감염 일으키는 세균...국과수 부검 시작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잇따라 숨진 신생아 4명의 사망원인이 이틀째 오리무중이다.

그나마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사망 신생아 4명 중 3명이 ‘그람음성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확인된 점은 성과로 꼽힌다. 그람음성균은 면역력이 떨어진 중증 질환자에게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과 요로

감염 등의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철저한 감시와 처치가 요구되는 세균이다. 살모넬라균, 이질균 등이 그람음성균으로 분류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8일 “사망한 신생아 3명이 사망 전 시행한 혈액배양검사를 살펴본 결과 그람음성균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배양 검사가 진행 중으

로 정확한 균종은 20일 이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혈액배양검사는 혈액 내의 미생물을 배양하는 방식으로 혈액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균을 배양해야 하므로 검사에 수일이 걸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첫 시신 부검을 시작했다. 연구원 측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많은 것을 들여보냈다는 입장을 천명한 만큼 부검이 끝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검을 해도 사인이 당장 밝혀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검을 통해 최종 사망에 이르게 한 질환은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런 질환에 영향을 미친 ‘선행사인’을 분석하는 데는 시일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혈액, 약물 등에 대한 검사는 1주일 정도, 종합적인 부검 결과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을 직속 전문수사부서인 광역수사대가 전담해 처리하기로 했다. /연남뉴스

캠스필드 소유·빛 피해 판결 불복 주민들 항소

광주 북구 임동 한국아델리움 1단지 야구장 소유·빛 피해 대책위원회는 오는 26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책위는 광주 기아 캠스필드(광주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다.

지난 7일 광주지법 민사3부(허상진 부장판사)는 광주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655명이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책위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측은 인근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스피커 사용 자제, 차폐조경수식재,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들어 법원도 소유와 빛 피해 발생을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주민들은 “법원이 체육시설에 대한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익성을 앞세워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을 내렸다”며 “끝까지 항소해 국민 기본권을 인정한 판례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단 소송 측중 결과 60 데시벨(dB) 이하 결과가 나온 세대를 제외한 소송 참여 주민의 수를 1심 656명에서 400여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항소 이후에도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행정소송과 야간경기 중지 기저본 등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수도꼭지·변기 고장” 속여 수리비 챙긴 60대 남성 구속

광주동부경찰은 “상가나 어린이집을 돌며 ‘화장실 수도꼭지나 변기가 고장났다’고 속인 뒤 수리비를 챙겨 달아난 6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2일 광

주시 동구 학동 한 어린이집에서 화장실 변기를 고쳐주겠다고 5만원을 받고 달아나는 등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광주 일대 19곳에서 12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년 간 비슷한 수법의 소액 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에 나섰다. 김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 행각을 벌이다 3개월만에 붙잡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식당과 건물 지하 들어가 몸 녹이려 불 피운 노숙자

○...60대 남성이 한 파를 피하기 위해 식당과 건물 지하에 들어가 몸을 녹이려고 잇따라 불을 질렀다가 일 반건조물방화혐의로 경찰서행.

○...18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윤모(60)씨는 지난 14일 새벽 0시55분께 광주시 광산구 김모(여·50)씨의 식당에 침입해 화장지 등을 모아놓고 라이터로 불

을 붙이는 등 2차례 걸쳐 광산구 일대 건물에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530여만원의 피해를 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노숙인으로 밝혀진 윤씨는 “머무를 곳을 찾아 무작정 걸 어다녔던 중 때마침 문이 잠겨있지 않은 식당 등을 발견하고 들어갔으나 너무 추워 불을 피웠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